

라다크, 불교와 이슬람교 갈등 골 깊어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저술 <오래된 미래(Ancient Futures: Learning from Ladakh)>로 세상에 소개된 라다크, '작은 티베트(Little Tibet)' '마지막 낙원'으로 주목받던 이곳에서 불교와 이슬람교 간의 불협화음이 심상치 않다.

인도 영자 매체 '더 파이니어(The Pioneer)' 지는 11월 23일 "지난달 잔스카(Zanskar) 시에서 불교도 28명이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과정에서, 양측 종교인들의 물리적 마찰이 빚어졌을 것"을 비롯해 라다크 지역 도시에서 불교와 이슬람교 간의 대립 각이 날카롭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불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은 5개의 웅장한 이슬람교 사원이 세워진 레(Leh) 시장 거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곳의 불교도 수는 이슬람교도 수보다 많지만, 사원의 규모는 이슬람교 사원이 불교 사원보다 더욱 크다.

이에 대해 "마치 과시를 하는 듯하다"고 반감을 드러낸 티셔링 남갈(65·교사) 불자는 "라다크 지역에서 초기 이슬람교 사원은 소규모에 의해서 불교 사원과 흡사했는데, 최근 10년 사이 이슬람 양식 특유의 돌과 뾰족한 탑으로 단장되기 시작했다"며 "최근 개축한 자미아(Jamia) 사원은 전형적인 이슬람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 시장 거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린첸(Rinchen·불교도) 씨는 "이곳에서 10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칼길(Kargil) 시장 거리에서는 나자브(Najaf)를 앞세운 상점 입간판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이슬람교도 지역 주민들이 이 곳을 '이슬람 세계'로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목했다.



라다크의 레(Leh)에서 열린 달라이라마 법회에 많은 불자들이 모였다. (사진 왼쪽) 레 거리 풍경. 불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은 5개의 이슬람교 사원이 세워진 레(Leh) 시장 거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곳의 불교도 수는 이슬람교도 수보다 많지만, 사원의 규모는 이슬람교 사원이 불교 사원보다 더욱 크다.



라다크의 레(Leh)에서 열린 달라이라마 법회에 많은 불자들이 모였다. (사진 왼쪽) 레 거리 풍경. 불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은 5개의 이슬람교 사원이 세워진 레(Leh) 시장 거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곳의 불교도 수는 이슬람교도 수보다 많지만, 사원의 규모는 이슬람교 사원이 불교 사원보다 더욱 크다.

40년간 불교도 7.96% 줄어 라다크佛연합, 라다크 독립 주장

'나자브'는 이라크의 성도(聖都) 'Najaf'에서 따온 것이다.

히말라야 산악 지역은 본래 티베트 불교의 영향권이었다. 그런데 14세기 무렵 이슬람 상인들이 유입되고 티베트인과 혈연관계를 맺으면서 이슬람교가 싹트기 시작했다. 또한 5대 달라이 라마 '야왕 톨상 가초'(1617-1682)가 이슬람교를 인정하면서,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1959년 전후로 라다크 지역에는 약 3000여 명의 티베트계 이슬람교도가 살고 있었고, 양측 종교 기념일을 경건하게 보내는 등 양측 종교계는 조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러나 '더 파이니어(The Pioneer)' 지에 따르면,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

다. 양측의 신성을 모독해 유혈 사태를 빚는 가하면, 정부군이 개입하고서 대립각이 잦아드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이에 대해 쿠마르(B. B. Kumar) 교수 (Institute of Central Asia and Tibet)는 "파키스탄, 중국, 인도 간의 영토 분쟁이 불거진 지금, 라다크에서 불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평가하고, "라다크불교연합(Ladakh Buddhist Association, 이하 LBA)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마르 교수는 1960년대 후반 레(Leh)에서 143킬로미터 떨어진 쿡쇼(Kuksho)를 방문했던 때의 조사 결과와 지금의 조사 결과를 비교한 최근 논문에서 "1967년 이 곳에는 45가구가 살고 있었다. 이중 7가구가 불교도였고, 이슬람교는 1가구에 불과했다. 나머지 37가구는 두 종교가 혼재했고, 이들 가구의 남성은 라임 트서링

(Rahim Tsering), 알리 타쉬(Ali Tashi), 남갈 무사(Namgyal Musa) 등과 같이 불교와 이슬람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여성은 불교식 이름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곳에서 혼재된 가구는 찾을 수 없고, 그 비율도 불교 24가구 이슬람교 20가구로 조사됐다. 상대방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쿠마르 교수는 논문에서 "최근 라다크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조사에서 40년 전과 비교해 불교 인구는 7.96%가 줄었다"고 전제하고, "이는 이슬람 원리주의인 와하비즘(Wahhabism)이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LBA는 히말라야 북부 산악 지역에서 종교적, 정치적 불교계를 대변하고 있는 단체로, 이들은 라다크 지역의 도시들이 잠무카슈미르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전투에 지친 영국군...불교서 편안함 찾아

구르카 용병들에 불교 인기, 영국인은 불교로 개종도

영국군의 선두에서 용맹을 떨쳐온 구르카 용병들에게 불교가 특별한 인기를 끌고 있다.

스리랑카 언론인 더 선데이 타임즈(The Sunday Times)는 최근 "불교수행을 하는 구르카 용병은 여군을 포함해 2005년 200명에서 최근 3800명까지 늘었다. 2800명은 불교신자인 네팔의 구르카(Gurkha) 부족이며 1000명은 영국인"이라고 보도했다.

구르카 용병은 1815년 영국이 네팔을 점령할 때 가장 맹렬하게 맞서 싸운 구르카 부족 전사들 중 일부 포로를 동인도회사의 사병으로 채용한 것이 시초다.

이후 구르카 용병은 홍콩·말레이시아·

키프로스·코소보 등 주요 전장에서 영국군으로 싸웠으며, 2차 세계대전 때는 20만 명이 참전해 4만 3000명이 전사하기도 했다. 지금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3500여 명이 복무중이다. 전통 무기인 쿠리 단검을 사용하는 이들의 용맹함은 정평이 나 있다. "비겁한 겁쟁이가 되느니 죽는 게 낫다"는 게 구르카 부대의 좌우명이다.

선데이타임즈는 영국인이 구르카용병에 입대한 후 불교로 개종한 이유에 주목하고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불교가 군 생활에서 느끼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수닐 카리야카와나(Sunil Kariyarakarwana) 군법사는 "병사들은 전쟁터로

나가 싸워야 한다. 이것이 군대가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된 곳을 뜻한다"며 "사람들은 정신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불교수행을 해 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수닐 법사는 "불교는 사물들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는다. 2500년 전 부처님은 '중중 최악의 상황일 경우 전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무력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구르카 용병들 사이에서 불교가 활성화 된 까닭은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자원의 부족이다.

부대 내에서 다양한 군대문화를 조율하는 피터 스트래딩(Peter Straddling) 중령은 "25년간 군복무를 하며 지켜본 결과 오늘날 영국군대의 25%는 더 이상 앵글로






구르카 용병의 정교로 복무한 영국의 헤리왕자(가운데)와 구르카 병사들

색스족도, 백인도, 개신교신자도 아니다"며 "월드컵과 올림픽에 다문화인종이 출전해 선전 하는 것처럼 구르카 용병들도 영국 육·해·공군을 통틀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최근 군대를 지원하는 소수민족이 늘어나면서 2005년 불교와 힌두교 무슬림교 및 시크교 병사들을 처음으로 군부대에 임명했다. **이어나 기자**


승광불교미술원

- ◎ 불상 : 원형조각, 전문 동불 특수불 각종불상
- ◎ 개금 : 벗겨지지 않는 순금개금 개발
- ◎ 개채 : 석채 및 유미라이트, 각종안료, 개채
- ◎ 탕화 : 다양한 방법으로 조성, 선택 (먹탕화, 홍탕화, 채색)
- ◎ 현재 : 종중사 이사, 범종불사
- ◎ 불사 상담 ◎ 불교용품점 운영

전화 02)491-5336 02)494-7478
공방 031)595-6558 031)591-7478
원장 011-226-5336 공방장 010-3179-6561

"승가건강비법 [마·가·목] 신비의 효능"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가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 개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교양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한방문헌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머리를 걷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하여,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단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다)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773-7838 잠남선원 대진수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분자님 연락바랍니다 ※

· 제 조 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 온라인통장(농협) : 227027-51-090791 · 예 금 주 : 남궁성근

현지조사 바탕으로 불교미술연구

세계의 불교학자(42)

미야지 아키라 日 용곡대 교수



미야지 아키라(宮治昭) 일본 용곡대 불교학과 교수는 철저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불교·역사·철학·민속·건축학 등 인접학문을 끌어들이며 미술사 연구에 새 지평을 연 세계적 권위자로 꼽힌다.

아키라 교수는 인도 및 중앙아시아를 주 무대로 철저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해왔다. 특히 작품과 그것을 둘러싼 역사적·사회적·사상적·풍토적 환경을 이해하면서 작품의 특질과 작품세계를 밝혀내려고 한다.

아키라 교수는 1945년 시즈오카현 누마즈시에서 태어났다. 1968년 나고야대학 문학부(미학미술사전공)를 졸업하고, 1972년 동대학원에서 인도철학을 전공했다.

그는 대학원생 때 처음으로 파피로 유명해진 아프가니스탄 바미안의 조사에 참가하게 됐다. 그때 그는 일본의 절이나 불상에는 없는 바미안의 유적과 대불(大佛)의 거대한 스케일에 감탄하고 이후 파키스탄의 간다라 유적이나 인도의 불적에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된다. 이를 계기로 1969년부터 1979년까지 바미안의 불교석굴 조사를 시작으로 거의 매년 인도, 중앙아시아, 중국 지역의 불교미술에 대한 철저한 현지조사연구와 자료수집을 해왔다. 그 결과 아키라 교수가 구한 수 만점이 넘는 사진자료 중에는 인위적·자연적으로 파괴되고 소실된 것들도 포함돼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야지 아키라 교수는 철저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예술작품에 내포된 역사·문화적 생명력을 발견하는데 주력해왔다. 이같은 노력은 그의 대표 저서인 <인도미술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아키라 교수는 <인도미술사>를 통해 인더스 문명부터 이슬람시대까지 무한한 시간대를 미술사를 기준으로 삼아 개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술했다. 그는 책에서 인도미술사를 관통하는 특징을 염두에 두면서도 인도미술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했는가를 역사적으로 탐구했다.

책에서 그는 자신이 발견한 인도미술의 세계를 "일본인들은 지금까지 인도 세계를 불교, 그것도 일본의 불교를 통해서 보아왔다. 그러나 일단 인도미술의 도판을 열어보면 풍요로운 생명의 다채로운 모습과 일본 불교미술과의 차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된다"며 "인도미술에서 현재와 피안의 이원론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는 현재와 피안이 혼연히 일체화되어, 현재 속에서 끊임없이 피안을 바라보는 위대한 시선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키라 교수는 불교미술을 중심으로 한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다루면서 아시아 전역으로 범위를 넓혀 불교미술연구를 추구한다.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실크로드를 통

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으로 전해졌다. 또 바닷길을 통해 인도에서 동남아시아로, 카일라스 설산을 넘어 티베트로 전파됐다. 이 과정에서 불교는 여러 민족의 고유신앙과 습합(習合)했고, 그들과 역사를 같이 하며 크게 변모했다.

아키라 교수는 "불교미술의 재밌는 점은 인도에서 흥한 불교미술이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지나 중국과 한국, 일본에 전파되는 사이 여러 가지 문화와 교류하고 변화해 각각의 토지와 민족에 뿌리내려 전개를 이루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불교 미술이 석가에 대한 신앙에서 일어났지만 일본의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 등 그러한 불상의 기원을 인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묘하게도 대부분 헛수고가 된다"고 설명했다.

불교미술연구 새 지평 열어

바미안 조사 계기 돼 현지조사 시작

아시아전역 불교미술 연구 지향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아키라 교수는 대승불교의 기원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인도 쿠산왕조(1세기~3세기 중엽)시대, 굤파왕조(4~6세기) 불교미술을 보면 석가불의 상(像)은 본생도와 석가의 설화도가 주 테마이기 때문에 아미타여래, 약사여래, 관음보살 등 대승의 불상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키라 교수는 이러한 양상을 양식사 및 도상학의 관점으로 접근, 아시아 불교문화의 동질성과 독자성을 밝히고자 시도했다. 그는 이런 관점을 <불교미술의 도상학 - 인도에서 일반까지>라는 책에서 드러낸다. 또한 아키라 교수는 상징성·의의성(寓意性)·속성 등 어떤 의미를 갖는 도상을 비교하고 분류하는 도상학적 연구에 관심이 많다.

그는 이런 방법론을 토대로 인도·중앙아시아의 불탑, 불전도, 보살상, 정토도 등을 다룬 <열반과 미륵의 도상학-인도에서 중앙아시아로>를 펴냈다. 책에서 그는 도상학적 접근으로 불교가 민속·역사학과 연계될 때 불교미술이 어떻게 변용되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했다. **이어나 기자**

사라져 가는 팔공산 범음 범패

염불소리를 살리고자 (동현)소승이 교육원을 개원하고

제 1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과목

- 초급반 : 초발심자경론, 사미율법, 바루공양법, 요령묵탁사용법, 천수경, 반야심경, 새벽도량서염불, 종성염불, 각단예불, 각축원법, 사시불공, 관음사시
- 중급반 : 49제역시, 사다리, 다비법(매장, 화장)염불, 방생법, 각종고사, 각점안염불, 구명사시, 생전예수재의문

특별의식 작법

- 천수비라, 복청계, 시다리비라, 도량계(나비춤), 오공양작법, 사물타법, 화장

교육과정

초급반	중급반
● 일반 : 6개월 (주 1회 2시간) 매주 :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 일반 : 12개월 (주 1회 2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 속성 : 3개월 (주 1회 3시간) 매주 :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 속성 : 6개월 (주 1회 3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 작법(6개월)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까지

모집인원

- 35명 (선착순) ※ 개강 이후 1기 졸업시까지의 중간에 수강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모집기간

2012년 12월 1일 - 2013년 2월 28일까지 마감

※ 신청하실분은 본원에 직접 나오셔서 접수하시고 교육일정 시간표를 꼭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수강신청 접수하시고자 본원에 오실때는 필히 명함장 사진 2매를 가지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수강일

2013년 1월 22일 오후 3시(초급반 일반부)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교육원 원장님과 직접 상담하여 주십시오.

▶ 교육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TEL 053)781-4200, 851-2666 / H·P 010-3424-0108

대구불교의식 범음 범패 교육원 원장 동현 합장